

‘사상 첫 4강 신화’ 박종환 동문 영면

이동건 기자 ehdrjs3589@khu.ac.kr

한국 축구계 ‘전설’ 박종환(동문, 체육학 1960) 감독이 영면했다. 박 감독은 1983년 멕시코 세계청소년 축구대회(FIFA U-20 월드컵)에서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아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이뤄냈다.

고(故) 박종환 감독의 영결식은 지난 1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엄수됐다. 영결식은 대한축구협회장으로 진행됐다. 대한축구협회 김정배 상근부회장의 약력보고 이후 고인의 생전 모습이 담긴 영상이 상영됐다. 이후 박 감독의 지휘 아래 1983년 멕시코대회 4강을 이끈 제자 신연호 고려대 감독의 추도사 낭독이 이어졌다.

체육학과 박종환 동문

1983년 멕시코 대회 4강 신화

지난 7일 별세, 10일 영결식 엄수

신 감독은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안고 박종환 감독님이 떠나시는 마지막 길에 섰다. 호탕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으로 경기장을 누비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갑자기 떠나셔서 황망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고 애석해했다. 또한 “해외에서 선수들이 음식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감독님께서 직접 호텔 주방에 들어가셔서 김치찌개 등 한식을 만들어주셨고, 그 음식을 먹으며 힘을 냈다. 감독님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을 것”이라고 회상했다.

추도사 이후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시작으로 축구계 인사들이 헌화했다. 그의 마지막 결연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 황선홍 올림픽 축구대표팀 감독 등 70여 명의 축구계 후배들이 있었다. 평소 가까이 지낸 개그맨 엄영수, 배우 이순재 씨도 고인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영정 사진 주변으로는 흰 국화가 수북했으며 고인이 생전 받았던 대한민국 체육상, 체육훈장 백마장 등 상장이 놓였다. 참석자들의 배웅 속에 운구 차량이 화장장으로 떠나며 영결식은 종료됐다.

드래프트 탈락한 박 감독에 유일하게 손 내민 우리학교 졸업 뒤 감독으로 승승장구

박 감독과 우리학교의 인연은 약



지난 10일 오전 9시 서울 종로구 축구회관에서 고 박종환 감독의 영결식이 진행됐다. 박 감독(하단사진 맨 오른쪽)은 1983년 멕시코 세계 청소년 축구대회에서 사상 첫 4강 진출이라는 업적을 이뤘다. (사진=연합뉴스)

70년 전에 시작됐다. 박 감독은 춘천고등학교를 다녔지만, 대학 드래프트에 뽑히지 못해 1년을 더 수학했다. 드래프트의 기회를 노리던 박 감독에게 유일하게 손을 내민 곳은 우리학교의 전신 ‘신흥대’였다. 우리학교의 안목이 없었다면, 축구 대표팀의 사상 첫 4강도 감독으로서 박종환의 삶도 없었을 것이다. 당시 체계적이지 못한 시스템으로 대학 진학 실패 후 운동을 그만두는 일이 허다했으니 말이다.

우여곡절 끝에 합격증을 받아낸 박 감독은 입학 전, 이문동에서 친구들과 합숙하기도 했다. 그의 절친이던 코미디언 이주일도 그 중 한 명이었는데, 이 씨가 생전 남긴 회고는 아직까지 유명하다. 이 씨의

회고록 <나의 이력서>에는 “입학하기도 전에 서울 이문동에 자취방을 정해놓고 합숙을 시작했는데, 박종환을 제외한 친구 4명이 고향에서 부쳐온 입학금을 ‘씻다’ 판에서 모두 날려먹었다. 이후 박종환은 능률한 경희대 축구부가 되고 우리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다. 나는 군예대와 유랑극단을 거쳐 연예인으로, 박종환은 세계청소년선수권 4강 신화의 주인공으로서 변모해갔다.”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우리학교에서 4년 간 뛰어난 활약을 펼친 박 감독은 2년 간 실업팀에서 선수생활을 이어가다 감독의 길에 오른다. 그는 1970년대 중반 최약체 팀 중 하나였던 전남기계공고를 대통령금배 우승으로 이끌며 감독으로서 이름을 날렸다.

이후 청소년 대표팀 감독을 맡아

멕시코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사상 첫 4강 신화를 썼다. 이 같은 업적 뒤에는 여러 에피소드가 존재했다. 박 감독은 멕시코 고원 지대에서 펼쳐질 대회에 대비해 선수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운동장을 도는 훈련을 지시했다. 선수들의 식단도 직접 관리했다. 현지에서는 콜라 등 탄산음료를 먹지 못하게 했으며 스스로 현지에서 우족을 사서 요리했다.

박 감독의 지휘력 아래,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홈팀 멕시코를 꺾었다. 8강에서는 강호 우루과이를 상대로 연장 접전 끝에 승리했다. 당시 외신들은 뛰어난 기동력으로 별

때 축구를 선보인 한국 팀에게 ‘붉은 악령’이라는 별명을 붙였고 현재 축구 대표팀 서포터즈인 ‘붉은 악마’의 유래가 됐다.

이렇듯 뛰어났던 경기력에 당시 청소년 대표팀을 향한 관심은 엄청났으며 브라질과의 4강 전 시청률은 83%에 달했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TV 앞에 모인 탓에 서울의 거리는 한산했다고 한다.

이후 박 감독은 1984~85년, 1986~1988년, 1990년, 1996년에 성인 국가대표팀 감독을 맡았다. 1993년부터 3년 연속 프로축구 일화 천마의 K리그 우승을 이끌었으며 2001년 창립한 한국여자축구연맹의 초대 회장을 지냈다. 2002년 대구FC, 2013년 성남FC 감독,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여주시민축구단의 총 감독을 맡았다.

잔정 많았던 박종환 감독

이상윤 해설위원 눈시울 빨개져
허정무 “우리나라 축구에 획 그었다”

박 감독은 85세를 일기로 지난 7일 별세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호흡곤란, 폐혈증이 겹쳐 건강이 악화돼 세상을 떠났다.

이날 영결식에서 고인의 ‘애제자’였던 이상윤 해설위원은 “카리스마가 넘치는 감독님이셔서 처음에는 다른 팀으로 가기를 바랐다. 그러나 직접 경험한 감독님은 잔정이 많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항상 감독님의 미운 오리 새끼라고 생각했다. 나만 미워한다고 생각했다”면서 “감독님은 나를 ‘축구선수’ 이상윤으로 만들어주셨다. 잊지 못할 분인데,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정말 죄송할 따름”이라며 슬퍼했다.

허정무 전 국가대표팀 감독은 “고인과 한 팀으로 활동한 적은 없지만 축구계 선배님으로서 존경한다”며 “1983년 청소년대회 4강 신화로 우리나라 축구에 획을 그으셨다”고 박 전 감독을 기렸다.

장례위원장을 맡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1983년에 이미 별때 축구, 토벌 축구를 실현하신 감독님은 한국 축구의 기준을 제시해주셨다”며 “감독님이 이끈 청소년대회 4강은 우리 연맹별 대표팀이 최근 좋은 성과를 내는 기반이 됐다고 생각한다”고 추도했다.

‘4강 신화’는 백 번 들어도 지루하지 않다. 지금도 축구 대표팀 경기가 있는 날이면 온 국민은 ‘붉은 악마’가 되어 응원의 목소리를 높인다. 박 감독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가 만들어낸 4강 신화와 붉은 악마는 한국 축구가 지속되는 한 계속될 것이다.